

과학 영재들 광주로 시선집중

광주과기원 9월·12월 첫 학부생 100명 모집

전과목 영어수업에 학생·교수 비율 3대 1

올해 개원 15년을 맞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전국 영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과기원이 처음으로 2010년 3월 학사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이다.

광주과기원은 오는 9월 초 수시모집을 통해 80명을, 12월 정시모집을 통해 2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

광주과기원은 최근 8년간 교수 1인당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게재권수 국내 1위를 고수하는 등 이미 국내 최고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자리잡은 탓에, 이번 학부생 모집은 고교 영재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전국 19개 과학교 등 20개 특목고와 민사고·상산고 등 주요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과기원의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이 학부선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기원은 학부생 선발시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영어성적·추천서·경시대회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며 ▲2단계는 구술평가로 인성·리더십·영어 및 교과지식 등을 심층면접해 1·2단계 성적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광주과기원 학부생 선발은 100명이라는 소수 암선에 칼텍(캘리

포니아공대) 스타일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대학과 과학기술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학부생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은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 학생이 100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3대1에 불과해 모든 수업이 문답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입학부터 1대1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학업과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가 이뤄진다.

더욱이 전 과목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며, 모든 학생은 학기 중 2개월간 미국 연수는 물론 재학 중 원어민 강사로부터 1대1 영어회화 지도를 받는 등 학부 졸업 후 곧바로 국제학계로 진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학부생들은 2학년까지 수학과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3학년부터 생명과학·화학소재·전기전산·응용물리 등의 분야 중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선우중호 광주과기원장은 “학사과정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석·박사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부생 저학년부터 학문 및 연구활동의 기초를 다지게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분야 교육도 다른 대학이 공개 학부 교육과 차별화되도록 비중 있게 실시한다”고 말했다.

연구대상 수종은 녹나무와 생

녹나무 천연향 이용 남도명품 향수 개발

전남도 산림자원研, 난대수종서 추출

녹나무 등 난대수종의 천연향을 이용한 남도명품 향수 개발된 딸·붓순·황칠나무 등 4개 수종으로, 이미 향기 성분 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17일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난대수종 4종으로부터 천연 향료물질을 추출해 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쾌한 향수 브랜드 개발을 추진중이다.

연구대상 수종은 녹나무와 생

딸·붓순·황칠나무 등 4개 수종으로, 이미 향기 성분 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수종별 향기 성분 분석결과 녹

나무와 생달나무는 시원한 향을,

붓순·황칠나무는 암식 향이 있

으며, 대부분의 수종이 알파(α)

파 증가로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생리적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α)파는 심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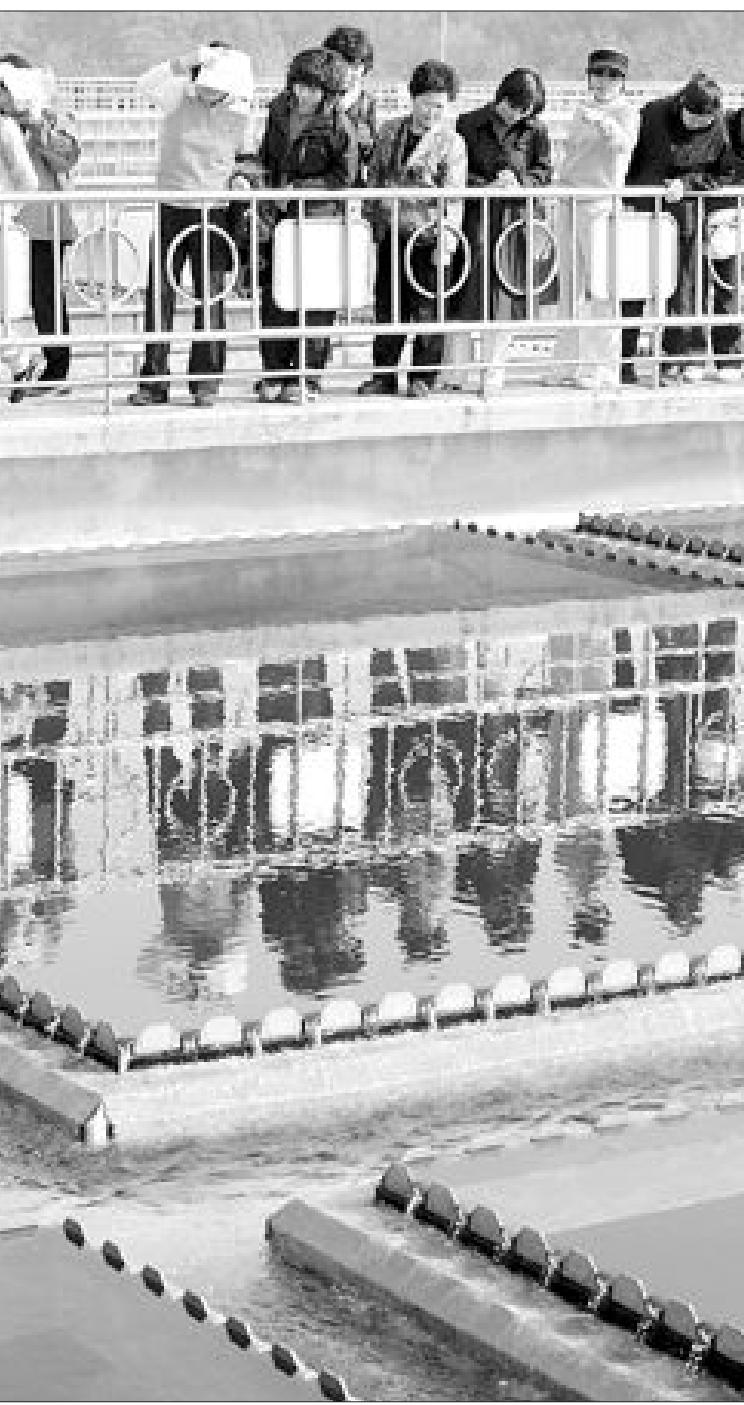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뇌파다.

심리적 효과 측면에서는 녹나무와 생달나무의 경우 우울감 억제 및 기분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황칠·붓순나무는 침울감과 피로감 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노연구센터 등과 함께 수종별로 양질의 향료 추출방법을 통해 향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향수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시제품 개발과 함께 본격적인 향수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매출 1,500억 넘으면

‘중소기업 분류’ 제외

세제 혜택 등 못받아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수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4건의 법률을 공포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업무추진비

광주시장 2억7천만원

전남지사 3억4천만원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 4.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

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보면 인천시가 4억4천3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시 4억333만원, 경기 3억8천8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억4천758만원, 대전 3억3천171만원, 제주 3억900만원, 광주 2억7천978만원, 충북 2억7천800만원, 충남 2억5천674만원, 경북 2억3천100만원, 대구 2억1천89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모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하반기부터 … 생산지·농약 사용 여부 알수 있어

농산물의 종자와 생산지,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종류의 농산물로 확대된다.

농립수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해 현재 쌀 등 105개 품목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은 지금처럼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에 참여해 GAP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된다.

지금도 이미 쌀, 콩, 옥수수, 참깨, 인삼, 양송이, 고추, 배추, 수박, 참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웬만한 농산물은 모두 이력추적제 대상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업 경영체 예비 신청 100만가구 육박

전남 97% 가장 많아

전라남도의 농업 경영체 예비등록 신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경영체 예비등록 신청이 전체 농가의 83.1%에 달하는 100만 가구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 경영체 등록 제는 정부가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

지,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작년 6월부터 희망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 신청을 받아왔다.

지역별 등록률은 농업지역이 많은 전라남도(97.7%)와 전라북도(95.7%), 충청남도(90.9%)가 높았다.

아직 예비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는 주민등록지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허긴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는거 아니고…

- 김종두



허긴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는거 아니고…

- 김종두

QUIZ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애독자 여러분께 매주 10명을 추첨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면’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동양건설】의 동양빌딩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① 청담지구 ② 종암지구 ③ 신사지구 ④ 성수지구

*★참여방법★

*★문제내용★

매주 일~토 일정으로 신문광고에서 헌트를 알아 정답을 표시한 후 글로벌저널

신문을 오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새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출판하는

온라인 신문입니다. 주제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

온라인 신문은 매일 10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는 대부분 30~40대 남성입니다.